

사순절 다섯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5TH SUNDAY IN LENT

주후 2021년 3월 2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53 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새 521)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2 번 시편(Psalm) 32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Luke) 13:22-30	임소영 집사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19) – 좁은 문으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Through Narrow Gate)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하시며,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안일했고, 제대로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왜곡된 소리와 물질적 가치에 더 집중했을 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매번 시험과 죄의 유혹 앞에서 무기력했던 우리의 신앙과
현실의 염려와 걱정에 늘 짓눌렸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더 이상은 말로만 끝나는 관념적인 회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은 생각으로만 그치는 미숙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진실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눅 13:2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한글개역 눅 13:24)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because many, I tell you, will try to enter and will not be able to.” (NIV Luke 13:24)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3/21 (주일)	3/22 (월)	3/23 (화)	3/24 (수)	3/25 (목)	3/26 (금)	3/27 (토)
출32	출33	출34	출35	출36	출37	출38	
요11	요12	요13	요14	요15	요16	요17	
잠8	잠9	잠10	잠11	잠12	잠13	잠14	
엡1	엡2	엡3	엡4	엡5	엡6	빌1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3/24 오후7:30)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에게”(롬14:7-9,17-19)
토요 새벽기도회 (3/27 오전6:30)	“구설의 타툼에서 벗어나도록” (시31:13-24)

지난 주일(3/14)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18) – 충성된 삶으로” (눅 16:1-13)

오늘 말씀(눅16:1-13)은 (일명)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이 불의함이며? 무엇이 충성된인지?” 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의 불의한 행동이 결국 주인에게 까지 알려져서, 청지기의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 사람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주인의 것으로 (대신) 선심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1)주인의 반응과 이에 대한 2)예수님의 평가는 사뭇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이 사람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며 칭찬을 했고, 예수님께서서는 심지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눅16:8-9)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며? 또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면, 원래 청지기는 자신을 위해 별도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지만, 실제로는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주인이 정해놓은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채무자들로부터 받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서, 빚을 감해 주는 행동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동이기 보다는, 그동안 자신이 불의하게 취득했던 이익을 제하고, 채무자들로 하여금 채무의 부담을 감해주는 의로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심폐소생술(CPR)을 통해, 멈추었던 호흡이 되돌아 오고, 심장이 다시 움직이는 것처럼, 그는 주인의 경고(눅16:2)를 듣고, 그 즉시 뉘우쳐서, 자신이 있어야 할 제자리로 되돌아온 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